

착한 왕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이범재 작가가 쓴 그림책 '착한 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착한 나라에 착한 왕이 살았다. 착한 왕은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식물과 물건까지도 착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왕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착한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착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없애라고 한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러자 착한 왕은 오래되었거나 낡아서 보기 싫은 건 모두 착하지 않다고 모두 내다 버리라고 말한다. 침대와 책상, 의자, 옷, 자동차, 밥그릇. 이쑤시개까지도 모두 새것으로 바꿨다.

궁전도 크고 멋지게 새로 지었다. 어느 날 궁전 밖에 나간 착한 왕은 햇볕 아래에서 백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착한 왕은 잡초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나 풀은 모두 뽑아 없애게 했다. 이제 나라에는 푸르름이 사라졌다.

착한 왕은 또 코가 비뚤어진 남자를 보고 보기 싫다며 보기 싫은 것은 착하지 않다며 사라지게 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가난은 착하지 않은 것이라며 떠나게 했다.

길을 잃은 노인과 아이, 무식한 자, 왕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나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새로 들어 온 물건은 한 번만 써도 헌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꾸자꾸 새것으로 바꿔야 했고 못생긴 사람이 떠나면 그다음 못생긴 사람이 떠나야 했다.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떠나면 그다음 사

람이 또 떠나야 했다. 사람들과 물건들은 매일매일 쫓겨나고 버려졌다.

어느 날 착한 왕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시커먼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림자라고 말을 하니 그 그림자를 당장 없애라고 말한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해를 없애야 했다. 그래서 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들은 해를 향해 온갖 무기를 쏘아댔다. 그렇지만 해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니 그림자도 사라졌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니까 착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전등을 켜서 어둠이 사라지게 했다. 전등을 켜자 다시 그림자가 생겼다. 다시 전등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다시 솟아올랐고 그림자는 다시 생겨났다. 해를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지만 해는 다시 생겨났다. 해 하나 떨어뜨리지 못하는 무능한 신하들도 다 나쁜 것이라면서 내 나라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

이제 착한 나라는 착한 왕 혼자 남았고, 해는 여전히 솟았다. 그림자도 자꾸 생겨다가 없어졌다.

궁전에 물건은 점점 남아 갔고 산과 들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이제 착한 왕의 명령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남은 착한 왕은 거울을 보게 되었다. 거울 안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이상한 것이 떡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저 더러운 자가 누구냐? 저자를 당장 쫓아내도록 하라! 하고 소리 지른다. 그러나, 착한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요즘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착한 왕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고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 착한 왕은 자기 말이 오직 착하다고 말한다.

그 옛날 공자는 일찍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신뢰라고 말했다. 신뢰, 신의는 거짓이 없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성실이다. 어느 날 제자인 자공

이 정치에서 곧 입국의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자는 식(食)과 병(兵)과 신(信)이라고 대답했다. 경제와 국방과 신의를 치국의 기본으로 말한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부득이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나냐고. 공자는 병을 버리라고 했다. 자공은 부득이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나냐고 물었다. 공자는 식을 버리라고 했다.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신의를 든 것이다. 신의를 잃으면 나라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이 위정자를 믿지 못하면 정치를 해나갈 수 없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다.

곧지 않은 사람을 곧은 사람 위에 놓으면 국민은 위정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만큼 약속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신의를 저버린 나라임을 본다. 자신의 못한 행동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신뢰가 '황금보다 귀하다'는 영국 속담처럼 인간관계에서 신용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나라와 국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뢰를 잃으면 발붙일 곳이 없다.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정교하게 뜯어 맞춰도 금이 남는다고 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는 땅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학생이 공부할 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신뢰는 모든 것을 앞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이 시대의 착한 왕에게 말하고 싶다. 자기주장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틀렸다는 고집은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루빨리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의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社說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미래 위한 대비다

송·배전망 '더 빨리 많이' 지어야

전남도가 가진 높은 전력 발전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배전망은 전력의 품질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을 꿈꾸는 전남도를 응원한다.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전력발전량은 충남과 경북,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전남의 전력자립률 또한 197.9%로 경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별로는 전남지역 원자력발전량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고 신재생 분야 전력생산량은 776만6075MWh로 전북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역시 605만8078kW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가진 풍부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전력의 공급과 수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남은 전력을 타 시·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국경세,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자산과 동일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력계통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도의 산업화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송·배전망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전력 공급은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충도 외면해선 안 될 우리 산업의 현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을 제정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 가장 큰 민생 입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4법'의 제·개정이 다.

남도김치 먹칠하는 '원산지 둔갑' 근절을

광주·전남서 위반 무더기 적발

광주·전남에서 유통·가공되는 배추와 절임배추 등의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광주·전남의 우수 먹거리인 '남도김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강화가 시급해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12월6일까지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 총 180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1638명이 투입돼 9440개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15개소가 적발됐다. 11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4개소는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도 다양했다. A업체는 무안에 위치한 배추밭에서 포전거래로 배추를 구매한 후, 그 물망 작업 과정에서 해남땅끝배추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위반 수량은 총 20톤으로 금액은 1700만원이다.

B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

산으로 속여 팔았고, C업체의 경우 아예 중국산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가공업체에 김치를 의뢰했다가 중국산 소금으로 절임배추를 가공한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피해를 봤다. 해당 업체는 납품된 김치를 전략회수·폐기처분했고 해당 가공업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남도김치는 국내 김치 중 으뜸이다. 김치를 담글 때 쓰는 우수한 장류부터 뛰어난 재료가 풍부해 남도김치의 맛이 최고라는 평가다. 이런 우수한 남도김치를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김치대전' 등을 통해 지역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려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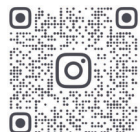
'남도김치'가 세계화로 뻗어가는 상황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는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다. 특히 김장철이면 김치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가공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재료에 현혹되는 상황이 다반사다. 또한 단속기관이 각종 김장 재료 제조 및 유통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일보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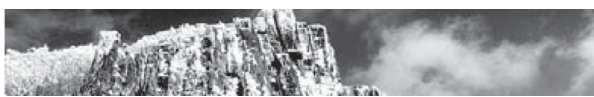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ebob@jnilbo.com



서석대

패션은 '상징'이다. 대중에 호소해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시그널'이다. 탈당과 입당, 연합과 결별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표적 '패션 정치' 아이템이 남성은 넥타이, 여성은 브로치다. 남성 정치인에게 넥타이는 소신과 소속감, 지향성, 변화를 보여주는 정치 도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별나게 붉은색에 집착한다. 별명도 '레드 준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넥타이 정치로 유명하다. 그의 보좌관이 쓴 책 제목이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다. 다음날 일정에 맞춰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넥타이를 땀다. 넥타이는 대화와 협치의 '정치적 화법'이기도 하다. 상대 당의 상징색을 골라 대화의 장을 만든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같은 빨간색 넥타이를 땀다. 얼마 뒤 둘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성 정치인은 브로치를 착용해 이미지를 만든다.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나비나 꽃 모양 등의 브로치를 달아 품위를 높이는 동시에 강인하고 성공적인 여성 리더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미국의 윌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브로치 외교'로 유명한 정치인이다. 이



라크인들이 자신을 "독사"라고 비난하자, 뱀 모양 브로치를 달고 대중 앞에 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햇살 모양 브로치로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 핸드백을 '정치적 함의'로 활용했던 여성은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다. 재임 11년간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마다 사각형 모양의 검정 가죽 핸드백을 가져왔다. 이 가방을 회의 책상에 올려 놓고 각료들을 몰아붙이는 모습(핸드백킹)을 자주 보였

넥타이와 브로치

다. 대통령탄핵 국면에서 두 정치인의 넥타이가 화제가 됐다. 탄핵안 표결일인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두색 넥타이를 땀다. 우 의장은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땀다. 이 넥타이는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당 대표직을 내려 놓으면서, '용비어천가'가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땀던 넥타이다. 한 측은 "초심,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변화 무쌍한 정치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엿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들이 착용하는 넥타이와 브로치를 눈여겨 보자.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